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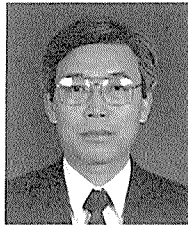
CIO의 고뇌와 時間의 軸

정보화체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지구촌의 비즈니스 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단위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정보시스템은 경제권역별로 경제의 수급연관구조(Market Supply Chain)에 따라 기업 간 연계된 시스템(IES: Inter Enterprise System)으로 신속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보산업사회에서 전략적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정보담당 관리자가 경영관리구조에서 보조 및 지원스태프의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최고 핵심중역(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이 되어 중추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발전에 전략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업계와 정부에서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산업사회를 향한 눈부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노력을 활발하게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많은 업에서 전산과 정보관리 담당이사의 수가 늘고 있다.

기업의 대내외 환경을 반영하는 방대한 전략정보체계(SIS: Strategical Information System)를 조직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해야 하



金圭洙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이사

는 우리나라의 최고정보 책임자(CIO)는 타 분야의 중역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고뇌하고 있다.

급속히 다기화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기술(분산 시스템, 통신망, 화상처리, 인공지능 MRP, JIT, CIM, POS, EDI 및 DRP등)을 신속히 소화하고 예상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본적 임무이외에도 모든 기업 활동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사회의 제도, 관행 및 기타 제반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여 기업의 내부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화된 설계와 그 구현을 수행해야만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CIO의 책무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적 여건하에서 전략적 정보시스템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CIO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시간의 축이다. 특히 단일 경영영역을 벗어나 관련기업들이 사회집단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정보산업사회 구조 및 속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수준에 발맞추어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막 한국에 도입되고 있는 CIO들은 이러한 시간의 축위를 달리는 수송기 위에서 21세기 정보산업사회의 터를 닦는 개척자임을 자임하며 많은 역경과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거듭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